김태희 수지 사극퀸 대결

metro

메트로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제2694호 www.metrobusan.co.kr

도미니카 WBC 전승 우승

방송·금융사 동시에 뚫렸다

악성코드로 해킹 KBS·신한은행 등 전산망 마비
2년만에 또 대규모 구멍…北 소행여부 확인안돼

20일 오후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킹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민·관·군 합동대책본부를 꾸려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사이버테러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방송제작·금융거래 상당한 차질

전산망 마비 사태는 오후 2시쯤 시작됐다.

KBS·MBC·YTN 등 방송사는 사내 전산망이 사실상 완전 마비돼 방송제작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영업점 창구 업무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한 전자 금융 거래가 2시간가량 중단돼 고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농협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제주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CD·ATM이 장애를 일으켰다.

사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는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오후 3시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 발생 직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우선 복구부터 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 정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 등도 위기상황 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장애가 발생한 은행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고 고객 피해는 전액 보상하도록 했다.

이날 전산망이 마비된 방송·금융사는 일부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LG유플러스 그룹웨어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메트로신문 온라인판은 이날 오후 2시56분쯤 LG유플러스 그룹웨어 메인 페이지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hacked by whois team(후이즈팀에 해킹당했다)"란 문구가 뜬 사실을 포착, 국내 언론 최초로 단독 보도했다.

이번 사태가 2009년 7·7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지난해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처럼 북한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격이 악성코드를 전 단으로 감염시켰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가진 해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논하는 시각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승원 방통위 네트워크보호팀장은 "21일 중 백신을 배포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번 조사 종료시점과 배후·공격 이유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LG유플러스 그룹웨어를 해킹했다고 자처한 "후이즈"(Whois)라는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배동호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긴박했던 2시간의 복구 20일 오후 전산망이 마비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보도국의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해킹했다" 의문의 'Whois'… 서유럽 해커의 과시용 공격 가능성도

북한 소행일까, 서유럽 해커의 장난일까.

방송·금융사들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번 해킹을 주도했다고 자처하는 '후이즈(Whois)'라는 단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자신을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리안이 트위터에 "현재 U+망에 접속하면 이상한 화면이 뜬다"며 캡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미미에 총상 흔적이 있는 해골 그림과 함께 "후이즈팀에 해킹당했다" "누가 후이즈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어 해골 그림 아래에 "경고! 우리는 해킹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우리 행동의 시작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당신의 데이터를 지웠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영문 글귀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해킹이 서유럽 해커의 과시용 공격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화면에 쓰인 문자가 서유럽에서 주로 쓰는 코드"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북한 소행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계 당국은 후이즈팀의 해킹 사건은 이번 금융사와 방송사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후이즈 해킹팀이 LG유플러스 그룹웨어 사이트만 해킹했을 뿐, 방송사와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공격이 해킹의 대상과 피해 규모 면에서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췄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박찬암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장은 "아예 부팅을 못 하도록 화면을 날려버렸다는 점에서 공격 방식이 과거의 디도스 공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해커 모임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번 에이말로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

20일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해킹 메시지. 후이즈라는 팀이 이번 해킹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한 누리꾼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망이 해킹돼 화면을 캡처해 올린 것이다.

IMF-카드대란 362만명 선별적 신용사면 검토

신용불량 주홍글씨 벗겨준다

금융당국이 1997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총 362만명에 대해 실태 파악 후 선별적 신용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 방안으로 채무조정 후 연체기록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 126만명도 해당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업실패나 경리해고,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금융권에 관련 기록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금융채무는 사적 계약에 속하므로 채무 지체를 없애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김충령기자 [illegible]

뉴스 & 뉴스

인터넷 쇼핑몰 짝퉁 판매땐 구매가의 110% 배상

소셜커머스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 4곳이 '짝퉁' 판매 적발 시 110%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쇼핑몰들은 소비자가 산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 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보상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한다. /[illegible]기자

카톡 5월부터 PC서도 사용… 베타테스터 모집

조만간 PC에서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는 24일까지 카카오톡 PC 버전 베타 테스터(CBT)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카카오 홈페이지(www.kaka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PC 버전은 친구 목록, 채팅창, 읽음 표시 등 현재 모바일 버전에서 제공하는 대화 기능 중심으로 지원한다.

카카오는 한두 달의 시험 기간을 거쳐 이르면 5월 말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수수료 다음달 80% 인하

중고차 거래 목적의 사고 이력 조회 수수료가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는 사고 이력 조회 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80% 낮춘 1000원만 받기로 했다.

이 업체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의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illegible]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스필버그 아카데미상 수상

[illegible]

CD7장에 쏠린 눈·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존재 관심… 경찰 3명 조사 "의미있는 진술 확보"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1)씨가 사회 지도층 인사 등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관련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20일 "윤씨를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와 다른 여성 B씨, 관련 남성 C씨를 불러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략적인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만큼 윤씨가 실제로 성접대를 했는지, 또 관련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필요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으며 성접대 관련 동영상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의 고소가 접수됐을 당시 서초경찰서는 CD 7장에 담긴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와 윤씨의 지인 2~3명, 고소인 A씨 측 2~3명, 고위공무원, 변호사, 금융인, 건설업체 경영자 등으로 알려진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연루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이 초대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곧 감계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 내부 사진

고무줄 가산금리… 은행따라 최고 8%P 차이

애타는 호소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답변하는 박 전 원내대표의 다리를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최고 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인 기본금리에 더해 대출에 따른 부대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금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평균 3.8%포인트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신한은행은 2.5%포인트를 적용하는 데 비해 SC은행은 8.0%포인트까지여서 편차가 컸다. SC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신용도 5~7등급 대출자 비중이 큰 탓에 평균 가산금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부분 1%포인트 안팎을 적용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적격대출(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돼 신용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붙일 요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용하는 까닭에 산출 기준이 모호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다. 지난 19일에는 외환은행이 기업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을 내도록 전산을 조작한 혐의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소송 추진 의사까지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반환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자영기자 [illegible]

'아임해피' 서초·용산

주민 행복지수 72점 최고… 강서구 60점 꼴찌

서울 시민의 행복 체감 정도를 지수화한 서울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6.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이 높은 지역과 계층에서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지수는 하락했다.

서울연구원이 2011년 시민 4만56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서울 시민 행복지수는 66.5점으로 5년 전인 2006년(64점)보다 다소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7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강서구는 60점으로 가장 낮았다. 용산·동작구도 각각 71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강서구에 이어 강북·마포구는 각각 61점, 62점으로 낮았다. 서대문·도봉·강남·중구·광진·관악·송파·종로·노원구도 평균인 66.5점을 밑돌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평균 59.9점으로 낮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48.7점에 머물렀으며 500만원 이상 가구는 69.7점으로 높았다.

항목별로는 건강상태 행복지수가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상태 행복지수는 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해보면 40대 이상의 저소득 가구 시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다.

/박동희기자 slayer@metroseoul.co.kr

폭설 하교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진 20일 수업을 마친 속초지역의 한 초등학생들이 눈길을 걸어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기 가슴에 손 올린채 자면 빵점 부모

심폐기능 떨어뜨려 돌연사 함께 잘땐 이불 따로 사용

올바른 수면 자세

○ ✕ ✕

천장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뉘어 재움 / 옆으로 뉘거나 엎드려 재우지 말음

/연합뉴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거나 아이를 옆으로 뉘어 재우는 것이 1세 미만의 영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박사팀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부검을 통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진단된 35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숨진 355명의 영아 가운데 수면 자세가 파악된 168건 중 44.7%(75건)가 아이를 엎어 재우거나 옆으로 뉘어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면 자세는 영아돌연급사증후군의 대표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가 푹신한 베개나 이불에 질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자는 것도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부모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잠을 재우는 행동이 심폐기능을 떨어뜨려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가 이뤄진 204건 중 59.3%(121건)가 부모와 잠자리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호 교수는 "아기를 재울 때는 천장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뉘이고, 부모와 침대·요·이불을 따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함께 자야 한다면 한 팔 간격(50㎝) 이상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목숨 걸어야 바꿔주는 신차

1년내 똑같은 중대결함 4번 발생때만 교환·환불

까다로운 국내 규정 탓에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중 5대 정도만 교환되는 실정이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였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의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점이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 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박상훈기자 zan@

설레는 봄선물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빌딩 앞 광장에서 에버랜드가 튤립축제 오픈을 하루 앞두고 창립 50주년을 맞아 500개의 튤립 화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다시 겨울! 서울 오늘 아침 영하4도

꽃샘추위가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중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춥고 맑을 것"이라고 20일 내다봤다.

전날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뚝 떨어진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9도~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영하 4도~영상 6도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동희기자

깡통·동래시장 문화관광형으로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3년간 각각 최고 20억 지원
시 "자문단 구성…야시장 개설·이색 볼거리 등 제공"

부산시는 부평깡통시장과 동래시장이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곳은 3년간 각각 최고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역사·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지역 유명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국내외 관광객의 시장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쇼핑과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매년 1개의 시장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2개 시장이 선정돼 3년간 각각 최대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계속지원사업 대상 시장에도 남항시장(2년차)과 구포시장(3년차)이 선정돼 각각 6억원(국비 3억원, 시비 3억원)과 3억3000만원(국비 1억원, 시비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상설 문화공연 개최, 명물 먹을거리 개발, 문화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전통시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전통시장은 시장별로 부산시, 자치구, 시장 경영진흥원이 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신창호 경제정책과장은 "시장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장별 문화와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 및 마케팅으로 전통시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상설 야시장 개설과 이색적인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 등을 통해 내·외국인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미기자 kam@metrobusan.co.kr

지구를 살립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지구를 위해 60분간 불을 끄는 '지구의 시간(Earth Hour)' 캠페인 동참을 권유하는 뜻으로 푸른 지구를 상징하는 지름 60cm 크기의 대형 케이크를 로비에 전시했다. 20일 오전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지구의 시간 캠페인 취지를 알리는 홍보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힐링코디 돼볼까 병원 상담가 돼볼까

여성 유망직업 훈련생 모집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올해 건설회계사무원(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풀어이징지도사(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힐링코디네이터(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한방·요양병원 상담실무전문가(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해양레포츠체험지도자(한국해양대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등 5개 여성 고용 유망 직업에서 120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양레포츠체험지도사는 20대의 청년층 여성을, 나머지 4개 직업은 30대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 양성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지역여성전문훈련기관 5곳에서 받게 된다. 훈련과정을 수료한 여성은 내년 3월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다각적인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운맘카드 1일 사용한도와 건강보험 이메일 혜택은

Q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비가 지원되는 고운맘카드 지원금 1일 사용 한도(6만원)가 없어지나요?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e-메일 고지를 신청(우편 고지 중단)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지원금 1일 사용한도 제한이 개지되어 잔액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운맘카드 이용이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까지 확대되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가 우편 고지를 중단하고, e-메일고지를 신청하면 보험별 매월 200원씩 감액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e-메일 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최대 830원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접수해야 당월부터 감액 적용됩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부산항 오는 세계 최대 컨선박 최대 규모인 컨테이너 선박인 머스크 소속 매비 머스크호가 다음달 26일 부산항에 기항한다. 이 배는 약 6m짜리 컨테이너를 1만5천500개까지 실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를 운항중인 선박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연합뉴스

장애인 인권 조례안 발의

부산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부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차별 피해와 인권침해의 사례를 접수하거나 상담하고 차별 및 침해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부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부산시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주택지원사업을 2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그린홈(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주택 건축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5000가구에 그린홈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총 360여 가구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보써 부산시 소재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일반·공동주택 건물주에게 에너지원 및 설치 규모에 따라 110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부산시청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한호
부산지사장 대표 김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3년 5월 21일 창간 2002.3.3일 등록번호 문화가00017

을숙도생태공원 개장 30일 걷기대회 열린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을숙도생태공원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을숙도생태공원 내 피크닉광장에서 '을숙도생태공원 개장기념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생태공원인 동시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을숙도생태공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경품, 간식을 제공한다.

한편 을숙도생태공원은 겨울철이 철새 도래 시기임을 감안해 부분만 개장했다가 이번 걷기대회 행사를 계기로 전면 개장키로 했다.

또 을숙도 이외 다른 하천 둔치(삼락·화명·대저·맥도)의 생태공원도 겨울동안 출입을 통제했던 지역을 동시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5개 둔치에 펼쳐진 갈대숲 속에서 낙동강 하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QR코드

부산 해운대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QR코드(스마트폰용 격자무늬 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해운대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등록증에 QR코드를 부착, 이용자가 등록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의 명찰에도 QR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

남구 평생학습 활성화 속도낸다

5개 대학과 협약 체결 ··토크쇼 형식 생활강좌 프로그램도 선봬

부산 남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남구는 지역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남구 관내 5개 대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남구는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경대는 인문교양·방과후학교·해양체험을, 경성대는 연극·영화·스포츠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부산외국어대는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 동명대는 노인 및 4060세대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산예술대는 악기 연주·애니메이션 등 예술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구는 평생학습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 홍보를 맡아 추진한다

한편 남구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방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토크쇼에 착안한 소규모 생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톡톡 강좌'가 그것

김혜준 강사가 석학 위의 혜민 '와선석'에 대한 내용으로 토크를 시작, 정영미씨가 '다육이와 토피어리'에 대해 이어간다. 또 수제 초콜릿 만들기, 알아두면 좋은 관혼상제 토크 등도 마련된다

문의: (051)607-4515

/김수미기자 kam@metrobusan.co.kr

부산銀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

부산은행은 부·울·경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을 담아 은행 홍보에 접목하고자 2013년도에 활동할 제7기 대학생 홍보대사 BS 프렌즈를 선발해 20일 발대식을 가지고 올해 7월 말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부산을 비롯해 울산, 창원, 진주 등 총 11개 팀으로 나뉘어 사회공시 활동과 은행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농촌 일사 활동, 건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활동 등을 벌이고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홍보대사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가게 된다

부산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1기부터 4기까지 20명 내지 25명을 선발해 활동해오다 지난해부터 100명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미국 핵 잠수함 입항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6900t)이 20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 7함대 소속으로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인 샤이엔은 수직발사 순항미사일 과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 등으로 무장된 공격형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핵심기동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부산경상대 법률인력 양성

부산경상대학교는 지난 18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연제구가 주관하고 경상대와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시행하는 2013년 제1기 법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 개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 선발된 30명의 교육생은 법원의 전·현직 공무원, 법무사 등 법률 실무 전문가 및 대학 교수들과 함께 11주간 총 262시간의 강도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수료 후에는 법률사무소 및 부동산 관련업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의 특화사업인 법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은 지난 2011년 첫 교육이 시작된 이후 2012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둬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부산여대 산학협력 협의회

부산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아시아드시티에서 2012년 산학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 대학과 산학 협력을 체결한 114개 산업체에 대한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또 BS금융희망나눔재단, 롯데하이마트(주), 지산간호학원, 모모스커피, 부산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5개 기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운대에 국내 첫 5D 체험관

5200㎡ 아이리얼파크 내일부터 본격운영

부산 해운대에 국내 첫 5D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5D는 디지털 영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4D에 후각을 더한 개념이다. 아이리얼파크 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 지하 1층에서 개관식을 갖고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5200㎡ 규모인 아이리얼파크는 ▲눈으로 배우는 세계 ▲내가 만드는 3D ▲터치로 움직이는 세상 ▲놀이로 즐기는 학습 놀이터 등 4가지 테마로 20여 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지름 10m, 높이 3.5m인 5D 원형 체험관은 관람객이 가상현실에 들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3D 영상 스튜디오, 영상 제작실과 함께 관람객이 움직이는 대로 가상 캐릭터가 따라하는 "얼리 모션"도 구축했다. 아이리얼파크는 이와 함께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췄다 /연합뉴스

사흘 만에 또 'SO' 대립… 정부개편안 처리 무산 김기현(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합의 사항을 적은 종이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 문제 등을 두고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며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재보선 역할 해야" "가짜친노 때문에 망했다"

민주당 계파갈등 재연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통합당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한길 민주당 의원은 20일 "총선 대선을 주도했던 세력이 또다시 당권을 장악해서 정면 돌파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친노계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주류인 김 의원은 계파 대신 당원 중심제를 재도입해 당권력을 당원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당 체제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노계의 윤생근 상임고문은 "당원 중심제는 지난 6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며 김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문 상임고문은 "친노 프레임은 수구언론이 만들어 덮어씌운 것으로 같은 당 안에서 삿대질을 지속한다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입혀 정당 지지도만 낮출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4·24 재보선에서의 친노 주류 역할론으로 번졌다.

이해찬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친노계 김태년 의원은 19일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 청양 선거에 각각 문재인 의원, 이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역할론을 주장했다.

반면 한때 친노진영 핵심 인사였던 한 인사는 이 전 대표와 문 의원, 한명숙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해 당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가짜 친노가 설치면서 당이 망했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김승리기자

김가겸(오른쪽)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속-승리 두갈래 여당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에 일부 최고의원 '자살행위' 반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날 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번 주일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초단체장 선거구인 경기 가평·경남 함양(이상 기초단체장 선거)과 기초의원 선거구인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수도권과 경남지역 5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심위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로 우리만 공천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백전백패"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뜻을 함께했다.

쇄신파의 남경필 의원은 "상대당이 공천하는 경우 우리에게 선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할 때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는 공심위가 최고위에서 거부된 안에 대해 재의결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자동 통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방침을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윤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한부모 전형' 53% 부유층 자녀

서울 자사고도 파행운영

일부 국제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한부모 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악용 사례가 자립형 사립고에서도 드러났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전형으로 입학한 서울 7개 자사고 재학생 1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명(52.7%)의 부모 직업이 검사·변호사·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사업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 대표를 포함한 기업체 종사자 9명, 금융업·대학교수·의사 각 4명 순이었다. 검사·변호사·약사도 1명씩 포함됐다.

반면 무직(4명)·전업주부(1명)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는 27명(24.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사배자 전형은 자사고와 국제중 등 특수목적학교가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어서 파행 운용은 예고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리기자

구청소식

중랑구 친환경 텃밭 분양

서울 중랑구는 22일까지 도심 친환경 마을텃밭을 가꿀 신청자를 모집한다.

마을텃밭은 묵동 봉화산 자락의 공원 유휴공간에 조성되며 규모는 약 1000㎡다. 구획당 10㎡로 100구좌를 운영하며 사용료는 3만원이다.

중랑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다. 문의 02)2094-2362

폐기물 배출 인터넷 접수

서울 금천구는 침대 등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주민센터나 구에 전화로 신고한 뒤 신고필증 판매소를 찾아가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02)2627-1475

구로구 자동차 정비교실

서울 구로구가 자동차 무료 정비교실을 연다.

구는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검사소에서 다음달부터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을 개설한다. 수강 희망자는 e메일(lesm0623@guro.go.kr)이나 전화(02-860-3218)로 신청하면 된다.

원광디지털대 축구부 창단

원광디지털대학교 축구부가 올해부터 대한축구협회 대학리그(U리그)에 참가한다.

지난 14일 창단식을 가진 원광디지털대 축구부(감독 김상훈)는 주장 백성환 선수 등 모두 26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졌으며 혹독한 동계 훈련을 치렀다. U리그에서는 중부 1리그에 소속돼 올 시즌 모두 18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KOSPI

Nikkei (일본)
12468.23 (+247.60)
Hang Seng (홍콩)
22256.44 (+214.58)
Shanghai (중국)
2317.37 (+59.90)
Dow Jones (미국)
14455.82 (+3.76)

EXCHANGE RATE

달러	1116.00
엔 (100)	1171.52
유로	1437.85
위안	179.63

"2분기엔 180만원" 삼성전자 지금 사?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4' 출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20일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와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둔화한 탓에 주춤하겠지만 오는 2분기에는 갤럭시S4 출시 효과가 나타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단기 저점 수준"이라며 "최대 경쟁 제품인 '아이폰'의 인기가 약해지면서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율 여건도 실적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일 기회라는 견해도 나왔다. 강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폭이 다른 대형 IT 종목들과 비교해 부진한 점이 투자 매력을 극대화한다"며 "주가가 2~3분기 중 최소한 18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현 190만~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현정기자

국내 LTE폰 가입자 2000만명 돌파 임박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LTE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E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4세대 이동통신의 통신 규격으로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특징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920만 명,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00만 명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LTE 전체 가입자는 빠르면 이번달 말께 2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2011년 7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9개월, 지난해 8월 LTE 전체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한 지 7개월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 무선 인터넷과 앱 이용을 위한 LTE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었지만 서비스는 답보 상태"라면서 "스마트폰 요금과 기기값의 거품을 빼는 등 이동사들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채권+주식 '혼합형펀드' 떴다

'대전환 장세' 전망에 올들어 5500억 유입… 해외선 수익률로 입증

채권과 주식을 한바구니에 담는 혼합형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채권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대전환(great rotation)' 장세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두고 연초부터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둘 모두에 적절히 투자 위험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

20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5200억원 규모다.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도 370억원어치가 순유출됐다.

반면 국내 혼합형 펀드에는 약 5500억원이 들어왔다. 주식이나 채권 중 어느 하나에 '올인' 하기보다는 두루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도 마찬가지다. 해외 주식형(-8800억원)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해외 채권형(1조4000억원)과 해외 혼합형(2000억원)에는 자금이 들어왔다.

해외 펀드의 경우 혼합형의 수익률이 이미 채권형을 앞질렀다.

해외 혼합형 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5.04%로 해외 채권형(1.18%)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1년 흐름에서는 부진했던 해외 혼합형(-1.54%)과 강세를 보인 해외 채권형(9.46%)의 수익률이 역전된 것이다.

국내 펀드의 경우 채권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 -0.29%를 기록하고 국내 혼합형은 0.75%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채권형은 1.18%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해외 펀드와 같은 역전 현상이 아직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순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인해 국내 혼합형 펀드보다 해외 혼합형의 수익률이 강세를 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덴마크 럭셔리 스피커 '리브리온' 한국 첫선 전 세계 음악 마니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덴마크 럭셔리 스피커 리브리온이 한국에 상륙했다. 20일 서울 청담 컨시어지 매장에서 열린 리브리온 한국 진출 행사에서 리브리온 최고경영자 토미 엔더슨(왼쪽)과 최고상업부문담당 프리스 엔더슨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리브리온은 특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선 스피커로 지난 1월 CES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8개 색상의 커버를 구비해 패션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정윤희기자

금융 두 수장 취임하자마자 '신경전'

금융위-금감원 '금소위' 신설 놓고 견해차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로써 지난 18일 취임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 당국 수장의 라인업이 마무리됐다.

취임과 동시에 이들은 난처한 일을 만났다. 지난 17일 정치권에서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문제에 대한 두 기관의 협의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두 기관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감원 내에 설치할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에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해놓고 있는 금감원은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을 바라고 있다.

지난 18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고심의 일단을 드러냈다. 신제윤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금감원 내에 둘 것인지 밖에다 독립을 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다"고 말했다. /김의성기자

두가지 조건 해결돼야 용산개발 정상 궤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9개 민간 출자사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코레일이 제안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시공물량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출자 건설사들은 코레일에 당초 약속한 기본 시공 물량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 무산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사업 정상화 방안에서 10조원 공사 물량 중 20%만 출자사들에게 배정하고 80%는 재분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자사들은 기본 시공 물량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사업 참여로 지분에 따라 시공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던 출자사들 입장에서는 시공권 반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9개 출자사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출자사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코레일은 21일 정오까지 출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자영기자 bzyhan@

반포로에 현대차·벤츠·아우디 매장이 나란히 자리잡은 모습. 이 일대에는 국산·수입차 브랜드가 즐비하다. /손진영기자

아우디도 비교당하는 곳

반포로 주변 국산·수입차 매장 집결…요즘 '車 쇼핑 1번지'로 각광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예술의전당을 잇는 반포로 일대가 자동차 쇼핑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도산대로·대치동 일대가 수입차 브랜드 일색인 반면 이곳은 쉐보레를 제외한 국산 브랜드도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와 국산차를 한 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반포로는 자동차 백화점'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도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서초역 인근의 르노삼성을 필두로 BMW·벤츠·아우디·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4총사, 렉서스·혼다·포드·재규어·현대·기아·쌍용차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다.

반포로의 개념을 반포대교 남단과 남부순환로 접점까지 확장할 경우 도요타·닛산·볼보·크라이슬러·피아트·포르셰로 쇼핑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이곳은 국산차의 홈그라운드였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수입차 브랜드가 대거 들어섰다. 이기에 기아차가 최근 스타일을 차별화한 매장을 오픈하면서 경쟁이 뛰어들었다.

고가의 공연이 연중 무대에 올려지는 예술의 전당이 인근에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홍보·전시 효과가 크다는 게 주요 배경이다. 특히 이곳은 강남대로와 더불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교통량이 많다.

지난주 수입 중형 세단을 알아보기 위해 이 일대를 찾은 김명준(35)씨는 "BMW 520d, 아우디 A6에 관심이 있어 왔는데 바로 옆에 폭스바겐·렉서스·벤츠 매장도 있어서 동급 모델을 추가로 구경했다"며 "현대와 기아차 매장에도 들렀는데 K5 가격이 바로 전까지 봤던 모델보다 절반 이상 싸 아직도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이겼을까. 계약률에서 수입차가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눈치다.

르노삼성 서초점 관계자는 "방문객이나 문의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일 것이다. 그런 만큼 계약 성사 확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왕단신

골든 노블리스 전원주택지

(주)강산애(www.kangsanae.co.kr)가 강산애 골든 노블레스 세컨하우스 전원주택단지를 시행·시공 및 분양 중이다. 강남에서 승용차로 경춘고속도로 이용 시 40분대 거리에 조성되고 있다. 골든 노블레스 전원주택단지는 총 12필지로 분양면적은 569~912㎡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3.3㎡당 115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즉시 건축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베네스트·크리스탈밸리 등 골프장이 접해 있고 축령산·운악산 같은 명산 또한 인접해 있다. 문의 031)584-1004

포천 오피스원룸 포레스벨

경기 북부지역 포천내 공구유통단지 약 2만3700㎡의 24개 동 519개 점포 중 127개 오피스원룸 포레스벨을 분양한다. 포레스벨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부터 고품격 가구까지 풀옵션으로 되어있으며 생활 공간의 효율적인 수납 공간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다. 또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과 급탕이 가능한 개별난방 시스템이다.

포레스벨은 분양 평수 9평, 실평수 6.5평으로 분양금액은 한 채당 평균 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문의 031)541-2754

2개 부서 함께 1박2일 'LIG손보 소리통캠프' 화제 LIG손해보험은 올 한 해 동안 전국 총 213개 부서, 3000여 명 임직원이 참여하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소리통캠프'를 진행한다. '웃으며(笑) 서로 이해하고(理) 소통한다(通)'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소리통(笑理通)캠프'는 두 개 부서가 쌍을 이뤄 1박2일간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소리통캠프에 참가한 LIG손해보험 직원들이 단체 줄넘기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모습. /LIG손해보험 제공

태블릿PC '갤노트 8.0' 다음달 출시

삼성전자의 올해 첫 태블릿PC 갤럭시노트 8.0이 다음달 출시될 전망이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노트 8.0의 다음달 국내 출시를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막바지 출시 협의에 접어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3에서 갤럭시노트 8.0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IM부문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노트 8.0을 필두로 올해 태블릿 PC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판매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1660만여 대의 태블릿 PC를 판매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현대스위스저축 스피드론 재직기간 짧아도 대출 OK

신용도는 좋지만 재직 기간이 짧아 금융권 대출이 거절된 직장인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직·신규 취업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스피드론 상품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1000만원까지 즉시 송금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기록 없는 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은행 수준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직장인 대출을 추천한다. 문의 1600-8888 /김지성기자

구월보금자리 임대 1100여세대 공급

29일 모델하우스 공개 다음달 2일 청약 시작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가 부족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아파트 1113세대를 이달 말부터 공급한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는 최근 3000여 세대의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오는 28일 공급 공고, 29일에는 견본주택을 개관해 일반에 공개하는 등 임대아파트 공급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구월보금자리지구 내 A-1블록 등 2개 단지다. A-1블록(분납임대)은 총 511세대에 51㎡형 216세대, 59㎡형 295세대로 구성됐다. 모두 7개 동에 지하 1층~지상 29층으로 지어진다. 또 B-2블록(공공임대)은 74㎡형 350세대와 84㎡형 252세대 총 602세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4월 8일에 일반공급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고 9일에는 3순위 접수를 받는다. 사전 예약 당첨자에 대한 본 청약 접수는 일반 청약보다 앞선 4월 2~3일 이틀간 이뤄지며 특별공급 대상자중 기관 추천 대상자는 4월 2일, 노부모 부양 및 생애 최초는 4월 3일,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는 4월 4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9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032-469-47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성기자 kazhane@

"이젠 마트에서 휴대폰 사세요" 2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알뜰폰 '플러스 모바일'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1일부터 기본요금을 0000원부터 선택할 수 있는 알뜰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폭스바겐 'CC' 엔진 업그레이드

폭스바겐의 인기 중형 세단 'CC'가 엔진 성능이 강화된 새 모델로 태어났다.

5인승 4도어 쿠페인 CC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2258대가 팔렸다.

폭스바겐은 20일 디젤 모델 CC 2.0 TDI 블루모션과 상시 사륜구동 모델인 CC 2.0 TDI 블루모션 4모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형 CC 디젤 라인업에는 새로운 2.0 TDI 엔진과 6단 DSG 변속기가 탑재됐다. 최고출력은 177마력으로 기존 모델보다 7마력 상승했으며 최대토크 역시 38.8kg·m로 높아졌다.

주행 성능을 향상했으나 연료효율성도 높아졌다. 2.0 TDI 블루모션 복합연비는 15.6㎞/ℓ이며 2.0 TDI 블루모션 4모션은 15.1㎞/ℓ이다.

신형 CC 모든 모델에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했으며, 가격은 기존과 같다. 2.0 TDI 블루모션 모델이 4860만원, 2.0 TDI 블루모션 4모션이 5060만원이다.

1984cc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된 2.0 TSI 모델은 4450만원이다.

/박상훈기자 zan@

구직자 "채용 간소화 환영"

한화 필기시험 폐지·삼성 토론 생략 등에 94% "긍정적" 응답

구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은 기업의 채용 절차 간소화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신입구직자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4.1%가 '잇따른 채용절차 간소화 소식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한화그룹은 공채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삼성그룹은 토론면접을 생략하기로 발표했다.

채용절차 간소화가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담감이 줄어든다'가 53.6%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신의 능력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한다'(26.5%), '스펙 준비 비용이 줄어든다'(10.4%), '스펙을 쌓는 경쟁이 줄어든다'(5.2%)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간소화 되길 바라는 채용절차는 '면접절차'가 38.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력서 항목'(23.8%), '필기시험'(23.3%), '인적성검사'(14.2%) 순이었다.

채용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폐지되길 바라는 이력서 항목(복수응답)은 '학력'이 53.1%로 1위에 꼽혔다. 이어 '어학점수'(51.6%), '해외연수 경험'(48.4%), '학력'(43.3%), '학점'(32.6%), '대외활동 경험'(31.6%), '자격증'(25.9%), '봉사활동'(22.3%) 등의 답변이 나왔다.

/김문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안면도서 상경한 왕꽃게 "살아있네" 2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모델들이 진도, 안면도 등 서해안에서 올해 첫 어획한 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100g 5,500원 내외. /현대백화점 제공

50억원어치 다이아몬드 한자리에! 20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내 드비어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3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보이고 있다. 드비어스 측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최고급 보석 10점(50억 원 상당)을 선보이며 특히 국내에는 없었던 다양한 모양의 3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DSLR+미러리스' 하이브리드 카메라

삼성전자 'NX300' 출시

삼성전자가 DSLR 방식과 미러리스 방식 자동초점 기능을 융합한 신제품을 내놓았다. 이 제품을 토대로 현재 세계 3위인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1위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빠르고 정확한 자동초점(AF) 기능과 다양한 카메라 통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카메라 NX300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DSLR(디지털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사용되는 위상차 AF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쓰이는 콘트라스트AF를 동시에 이용해 초점을 잡는 '하이브리드 AF'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이용하면 초점을 잡는 속도가 DSLR 수준으로 빨라지고, 6000분의 1초의 셔터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 데 유리하다.

2030만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으며 초당 8.6매 속도의 고속 연사를 지원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감도를 높여 ISO 25600을 지원한다.

특히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기기간 와이파이(Wi-Fi) 연결을 통해 곧바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자동공유(오토셰어) 기능도 갖췄다. 무게는 284g, 가격은 기본 제공 렌즈를 포함해 89만9000원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미래에셋 제604회 DLS

미래에셋증권은 위안화 강세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미래에셋 제604회 DLS를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40억원이며 만기는 1년이다.

이번 상품은 만기평가일의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최초기준환율과 같거나 낮으면(위안화 가치 상승) 연 4.75%의 수익을 지급한다. 위안화 환율이 예상과 달리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하는 경우에도 1%의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초과 청약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하면 된다.

SKT 25년 장기고객에 '호텔 뷔페' 대접

한 이동통신사를 오래동안 사용하면 차량정비,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꽃바구니 서비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일 자사의 장기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이 회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VIP멤버십 고객이 대상이다. 기기변경시 멤버십 할인 한도를 5만점 늘려주며 스마트기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기기변경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15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제공하며 2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25년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워커힐 호텔 뷔페 식사권이나 주유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박상훈기자 zan@

키프로스 의회 고액연금 과세 구제금융안 비준 거부

결국 디폴트로 가나 독·러는 팔씨름 돌입

키프로스발 먹구름이 또다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칠 조짐이다.

키프로스 정부가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방조했다는 의혹 속에 실제로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키프로스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구제금융 협상 비준안을 표결해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했다. 은행 예금에 세금을 매기는 유례없는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서둘러 예금 잔액 2만 유로 이하는 면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키프로스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자는 협상안 부결 소식에 환호하며 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구제금융 재협상마저 실패하면 키프로스는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구제금융 비준안이 부결될 때를 대비해 마련했다는 이른바 '플랜B'도 사실상 '질서 있는 디폴트'로 봐야 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지언론들은 '플랜B'가 ▲모든 사회 보장 기금의 국유화 ▲EU와 러시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영 자산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디폴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키프로스에서 '유로존 탈퇴' 또는 '부채 상환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는 데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원숭이, 조롱당하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시위대가 그를 원숭이로 묘사한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해무기 보유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이란을 겨냥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을 차례로 방문, 이란 핵문제와 팔레스타인 평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그러나 유로존 경제의 주도국인 독일과 이번 사태로 돈이 묶인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국환기자 kmlee@metroseoul.co.kr

19일 법정에서 경찰이 T.J 레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카득카득' 종신형 비웃은 킬러

美 10대 총기난사범, 반성 대신 유족 조롱하고 욕설

지난해 총기 난사로 3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살인마 T.J 레인(18)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레인은 법정에서 카득카득 소리 내어 웃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끝까지 잔인한 살인마의 면모를 보였다.

1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서쪽 지아거 카운티법원은 레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데이비드 피리 판사는 "레인은 아무런 동기 없이 그저 신문 1면을 장식하려는 마음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극도로 위험한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레인은 등교를 마치고 학교 식당에 모인 급우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 총기 소지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달 유죄가 인정됐다.

레인은 이날 선고 공판에 '킬러(KILLER)'라는 단어가 새겨진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긴커녕 피해 학생의 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유족들은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을 아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일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한국여성, 올챙이 입안 숨겨 출국하려다 덜미

한국 여성이 중국 광저우에서 선물 받은 올챙이를 입안에 숨겨 출국하려다 발각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이 16일 광저우 바이윈공항 국제선 출국 심사대에서 손가방에 물병을 숨겨 나가려다 걸렸다.

공항 직원들은 국제 항공 운송 규정에 따라 병 안에 든 물을 마시거나 버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낸 뒤 물을 단숨에 마셨다. 그러나 공항 직원들은 이 여성이 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는 승객을 불러 세웠다. 직원들이 입 안에 있는 물건을 뱉어내라고 다그치자 이 여성은 놀랍게도 입에서 올챙이 10여 마리를 쏟아냈다.

문제의 한국인 여승객은 공항 직원에게 "중국 친구에게 올챙이를 선물 받았는데 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 승객은 야생 생물을 밀반입할 수 없다는 중국 반항국 규정에 따라 결국 올챙이를 버리고 귀국길에 올랐다. /조선미기자 seonmi@

다이애나비 드레스 10벌 13억에 팔려

고 다이애나비의 드레스 열 벌이 19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경매에서 80만 파운드(약 13억원)가 넘는 값에 팔렸다.

이번에 판매된 드레스 가운데는 다이애나비가 백악관에서 존 트라볼타와 함께 춤춘 때 입었던 이브닝 드레스도 포함됐다.

다이애나비는 1985년 찰스 왕세자와 동행한 첫 번째 미국 국빈방문 기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최한 호화 만찬 파티에 이 감청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출석했다.

빅터 에델스타인이 디자인한 이 의상은 24만 파운드(약 4억원)에 낙찰됐다고 경매를 주관한 케리 터일러 옥션은 밝혔다. 낙찰 예상 최고 가격인 30만 파운드에는 다소 못 미쳤다. /조선미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말초신경손상 아니다"

가수 **장재인**이 말초신경계 손상이 아닌 근긴장이상증으로 확진을 받았다.

장재인 소속사 나뭇잎엔터테인먼트는 20일 "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 신경 초음파 검사, 근육 검사 등 정밀 검사들을 받고 최종 진단을 받았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일시적인 증상으로 1주일 입원 후 치료와 휴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드라마 '우와한 년' 주연

영화 '신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박성웅**이 tvN 'SNL 코리아'의 드라마판인 '우와한 년'(가제)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다음달 18일 첫 방송되는 '우와한 년'은 최고 인기 방송사 앵커 남편과 한때 최고였던 톱 여배우 부부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12부작 드라마다. 박성웅은 반전을 지닌 주인공 곰정한을 연기한다.

스눕 독 내한공연 게스트

2NE1이 힙합 대부 스눕 독의 첫 내한공연 무대에 오른다.

2NE1은 5월 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축구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유나이트 올 오리지널스 라이브 위드 스눕 독'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블랙아이드피스의 멤버 윌아이엠 새 음반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데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타와 교류하게 됐다.

네팔 희망학교 멘토 참여

가수 **지나**가 네팔의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학교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한다.

청소년에 주축이 돼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에 공감해 참여를 결정한 그는 기금 후원자 중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 CD와 티셔츠를 전달한다. 굿네이버스 측은 "소외계층 기부를 독려하는 지나의 모습은 청소년 팬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즈·블루스 10곡 수록… 설레요
날씬해졌다고요? 비결은 도시락

첫 정규앨범 '퍼스트 러브' 발표한 괴물 신인

이·하·이

이하이(17)는 자그마한 체구에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 큰 눈망울을 가진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부른다.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과 묘한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소울풀 목소리를 겸비했기 때문이다. SBS 'K팝 스타' 시즌1 준우승을 차지하고 6개월 만에 내놓은 데뷔곡 '1 2 3 4'는 지난해 최장기간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강력했다. 드디어 첫 정규앨범 '퍼스트 러브'를 발표했다. 다시 이하이 뭐가 시작됐다.

#다른 느낌의 노래 갈지만 하나의 색깔로

인터뷰 중에도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듯 등에서 가방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를 묻자 "별건 없다. 아침에 싸들고 나온 도시락이 들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번 앨범을 발표하며 몰라보게 날씬하고 예뻐진 외모로 변신한 비결이었다.

"식단 관리를 꾸준히 했어요. 몇 달 동안 고구마만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단호박에 꽂혔어요. 유연하지 못해 단점을 보완하는 휘트니스 운동도 해요. 살을 얼마나 뺐는지는 비밀이에요. 사춘기라 말하기가 좀 창피해요. 목표치까지는 더 빼야 돼요. 무조건 마르기보다 보기 좋은 정도가 목표예요."

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직업이라 외모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는 "그래도 외모보다 노래에 좋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음반에는 데뷔곡에서 선보인 그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킨 재즈와 블루스 10곡이 실렸다. 이하이는 "지금까지 남의 노래만 불러오다가 내 노래, 내 앨범이라는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정말 뿌듯하다. '1,2,3,4'도 내 노래였는데, 그때는 긴장됐다면 지금은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테디, 타블로, 마스타 우, 선우정아, 쿠시, 초이스37 등 YG엔터테인먼트 간판 프로듀서들이 소속사 막내의 첫 작품에 총력을 쏟았다.

날 키운 건 흑인음악 모창의 시련

"저마다 개성이 분명한 작곡가들이죠. 저마다 다른 느낌의 노래 같으면서도 하나의 색깔로 앨범 전체가 묶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곡을 잘 골라주셨고요."

미국 빌보드 등 해외 언론에 대해 6개를 된 신인이 주목했고 "한국의 아델, 더피"라며 극찬했지만, 그는 "과한 칭찬"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비욘세를 꼽아왔던 그는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완벽한 가수다. 관련 동영상을 거의 다 찾아봤다. 자신의 음악에 대한 확신을 가장 본받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 요즘은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킴브라의 음악을 많이 듣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때 가수 꿈… 프로가수 아직 낯설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수를 꿈꿨고, 중학생때 지역 노래 대회에서 그를 지켜본 'K팝 스타' 제작진의 권유로 방송에 나오게 됐다.

"'K팝 스타'에 출연한 이유는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엄마는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언니에 이어 저까지 힘든 길을 택하는 걸 원치 않으셨죠. 지금은 아빠를 기러기로 만들고 서울에서 저만을 위해 전폭적인 뒷바라지를 해주시지만요. 호호."

어린 시절부터 흑인 음악에 빠져 그들의 노래를 무수히 따라 불렀다. 흉내 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깨닫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렀고, 어린 날의 노력이 지금의 독창적인 '이하이표 보이스'를 만들었다.

최근 선배 가수인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는 인터뷰에서 "우리 (가수들)끼리는 딱 한 소절만 들어봐도 아는데, 듣자마자 '우~와, 세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나이 때 나를 돌아보면 지금의 이하이 음악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사랑 노래 같은 경우 아직 가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작곡가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안 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해 표현하죠. 프로 가수라는 게 아직 낯설지만, 앞으로도 나만의 색깔이 분명한 가수로 성장해가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디자인/박선홍

“ 노래 흉내 낼수록 되레 좋지않은 소리
내 방식대로 불러 특유의 소울 과시

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국내 통신사 중 브랜드 가치 1위 기업, KT

브랜드 파이낸스의 2013년 브랜드 가치 평가결과,
KT가 대한민국 통신기업 중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KT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객과 함께 글로벌 ICT 리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Brand Finance Global 500 2013
- TOP 50 Telecoms Operator Brands 2013 KT 28위 (국내통신사 中 1위)
- TOP 500 Telecom Brands 2013 KT 32위 (국내통신사 中 1위)
- KT 브랜드 가치 49억 1100만 달러 (전년대비 12억 8700만 달러 상승)

몰입도 높이는 올드팝 있기에 더욱 빛나는 영화 '웜 바디스'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는 영화 '웜 바디스'가 영화 속에 흐르는 올드팝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웜 바디스'의 음악은 1995년부터 8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해온 베테랑 알렉산드리 벳시박스가 맡았다. 벳시박스는 트렌드를 좇는 자극적인 멜로디 대신 1960~8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음악들을 선택했다.

재미 글리프의 '시빙 인 림보', 밥 딜런의 '쉘터 프롬 더 스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헝그리 하트', 스콜피언스의 '록 유 라이크 어 허리케인' 등 명가수들의 곡을 삽입해 '웜 바디스'만의 특유의 매력을 살렸다.

적재적소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가 주인공들의 상황,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몰입도를 높인다. 특히 영화 속 삽입곡들은 '사랑하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외에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폴라로이드 카메라, MP3 대신 LP 등 복고 감성을 떠올리는 물건들이 주인공 남녀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 시선을 끈다. /유순호기자 suno@

wind8686@naver.com

홍승엽의 댄스살롱

해설 곁들인 현대무용

'댄스살롱' 홍승엽 예술감독 작품설명
'벽오금학'은 이외수 소설 각색한 공연

국립현대무용단이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홍승엽의 댄스살롱'은 작품 해설이 곁들여진 공연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안무가인 김충은·박근태·송주원·안영준 등 4명이 각각 15~20분 분량의 신작을 선보이고, 홍승엽 예술감독이 안무가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대무용에서 해설이 있는 공연 형식은 이례적으로, 현대무용과 관련된 미술 작품과 무용수들의 연습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로비에 마련된다.

다음달 5~7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될 '벽오금학'은 유명 소설가 이외수의 '벽오금학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홍 감독이 '인연'을 주제로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의 연(緣)을 섬세한 움직임으로 무대화한다. 그 인연은 붉은 실타래로 구현돼 무대와 객석을 넘나든다.

앞서 홍 감독은 문학작품의 내용을 모티브로 이미 여러 차례 무용 공연을 만들었으며, 한국문인협회에서 '가장 문학적인 현대무용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2)3472-1421

/박선영기자 sak0427@metroseoul.co.kr

Bn 대선주조
Ci은 부산이다
부산야구가 이겼을 때 힘차게 부산갈매기를 외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에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수놓은 화려한 불꽃의 향연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시원-
부산은 시원입니다
시원은 부산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아침이 상쾌한 시원

<스타강사>

김미경 "논문 표절?… 양심 안 팔았다"

'무릎팍도사' 2편 방송 취소

스타 강사 김미경(사진)이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좀 더 글을 섬세하게 다듬지 못하고, 학계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은 실수였지만 양심까지 함부로 팔자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김미경이 2007년 2월 작성한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성 분석'에서 기존 연구 학위논문을 최소 4편 짜깁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미경은 "강의를 다니면서 깡깡이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분석 내용이 논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에는 원저자 두 명의 이름을 표기했는데 그것이 표절이 되는 것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일로 MBC '무릎팍도사'는 21일 방영 예정이던 김미경 편 2부를 취소하고 대신 스페셜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김미경이 진행하는 tvN '김미경쇼'는 이화여대에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탁진현기자

피렌체서 '전도연 특별전'

'칸의 여왕' 전도연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5~24일까지 열리는 피렌체 한국 영화제의 초청을 받아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19일 영화 '하녀'에서 호흡을 맞춘 임상수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이번 초청은 영화 '밀양'으로 2007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드높인 전도연을 기념해 열리는 '전도연 특별전' 때문이며 현지 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탁진현기자

수지·김태희 "내가 사극퀸"

'구가의 서' '장옥정'으로 다음달 불꽃대결

남성 팬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쓰에이 수지와 톱스타 김태희가 사극 퀸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이들은 각각 다음달 8일 첫 방송될 MBC 월화극 '구가의 서'와 SBS 월화극 '장옥정' 주인공으로 나선다. 나이도 연기 경력도 십 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둘 다 데뷔 후 첫 사극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기에 앞서 기싸움 미모 경쟁부터 시작했다. 두 드라마의 방송사는 대본 연습 모습과 방송 예고편을 연이어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남은 건 연기력 대결로, 두 사람은 이번 작품을 위해 일찍부터 사극 연기 연습에 매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에 요부로 그려지던 장희빈을 패션 디자이너로 재해석해 내는 임무를 맡은 김태희는 사극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연기력을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다.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기자로서 무르익고 싶다"면서 "올인 결정 후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등의 등 사극을 꾸준히 보기 시작했다. 또 사극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 몸가짐과 말투를 조심하고 있다"고 남다른 노력을 설명했다.

영화 '건축학 개론'을 통해 '국민 첫사랑'으로 떠오른 수지도 사극에서 반인반수 최강치(이승기)와 사랑에 빠지는 무예교관 담여울 역을 맡아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일찍부터 승마와 무술 연습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S2 '직장의 신'도 다음달 1일 첫 방송됨에 따라 김혜수도 월화극 경쟁에 가세했다.

/탁진현기자 sa12427@metroseoul.co.kr

싱가포르 달군 조인성·송혜교

'그 겨울' 현지 인기 예감

조인성·송혜교 커플이 싱가포르 안방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13일 싱가포르 현지채널에서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국내 방영이 끝나지 않은 드라마가 외국에서 방송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작사는 "국내 방송이 시작된 이후 일찌감치 싱가포르에 판매됐다. 한류스타인 조인성과 송혜교가 출연하는 데다 국내 반응에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싱가포르 팬들의 성원이 이어져 13일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겨울…'은 1회부터 타깃 시청률 1%를 넘기며 시작과 동시에 시청률 대박을 기록했다. 제작사 측은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한류 열풍이 재점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외에도 일본 및 다수 아시아 국가에 판매돼 방송을 앞두고 있다. 국내 종영 이후에는 출연진의 해외 프로모션도 예정돼 있어 '그 겨울…'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10% 중후반대 시청률로 수목드라마 1위를 지키고 있다. /유순호기자

한국영화 평점 깎아내리기 "너무해"

네티즌 '1점 주기' 집단행동 -- '파파로티' 등 피해

영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네티즌들의 평점놀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관람 후 평점' 게시판에서는 현재 상영 중인 한국 영화에 네티즌들의 '1점 주기' 집단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사이트에서 시작된 평점 공격은 '의리', '으리' 등 특정 키워드를 활용해 여러 영화에 무차별적으로 1점을 남발하는 집단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화는 최근 개봉한 '파파로티'다. 최근 게재된 네티즌의 평점 500개 중 300여 개가 1점으로 영화의 본질적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글들로 도배됐다. 이는 순수 영화 관람객의 평가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로 인해 14일 개봉 시점부터 9.2~9.3점을 유지해오던 '파파로티'의 평점은 평균 1점 가까이 하락했다.

이 같은 집단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댄스영화제 최고상을 수상한 영화 '지슬' 역시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또 이미 흥행을 기록한 '7번방의 선물'과 '신세계' 어도 뒤늦게 평점 1점이 몰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영화 평점 게시판은 영화의 입소문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보 공간으로 이미 관객의 작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평점 깎아내리기는 상영 중인 영화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파파로티' 관계자는 "감독과 배우를 비롯한 수많은 스태프가 열정과 땀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관객들의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특정 네티즌의 행동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은 작품에 대한 테러인 동시에 상승세인 한국 영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suno@

'미스터 고' 3D 고릴라 "털 한 올까지 살아있네"

올여름 최고 기대작인 영화 '미스터 고'의 주인공 고릴라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허영만 화백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미스터 고'는 중국 서커스단에서 생활하다 한국 프로야구단에 입단해 슈퍼스타가 되는 고릴라 링링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링링에 관심이 집중됐다.

20일 캐릭터 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링링은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털 한 올까지 완벽하게 구현됐다. 영화사 측은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완성도를 갖춘 디지털 캐릭터로 100% 국내 기술력으로 탄생됐다는 점에서 더욱 감탄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미스터 고'는 국내 최초의 풀 3D이자 아시아 최초 디지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로 7월 개봉된다. '미녀는 괴로워'와 '국가대표'를 연속 흥행시킨 김용화 감독의 작품이다.

/유순호기자

논산딸기축제 자원봉사·동신사 퍼레이드…

지역축제 주민참여형 변신

지역 축제가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참가자 중에모으기에 발 벗고 나섰다. 허울뿐인 관람객 실적보다 실제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13 논산딸기축제'는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에 한창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소양교육을 받은 후, 관람객 안내·안전 관리·거리 미화 등 축제 진행 전반을 돕는다. 점심식사 외에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음에도 작년에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딸기축제에 힘을 보탰다.

논산딸기축제 추진위원회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평일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주말에라도 활동하고 싶다며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를 위해 구민하모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 단원에 선발된 구민들은 금나래아트홀에서 전문 음악인에게 마스터클래스 교육을 받는 등 리허설을 진행한 후, 축제 기간인 4월 13일 본 공연을 갖는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는 통신사 행렬의 선두에 설 정사·부사·종사관 시민 참가자를 선발한다. 그동안 이 역할은 구청장 등 주요 행정 관계자가 담당해왔었다.

한 지역 축제 관계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축제라고 홍보 중이지만 외부인은 거의 없고 자치구 거주민이 대부분"이라면서 "각종 참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 구성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귀띔했다.

/김민지기자 kwon@metroseoul.co.kr

국내 10대 코스… 요즘이 최적기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내일 2013 시즌 오픈

휘닉스파크 골프클럽이 22일부터 '2013 시즌 골프클럽'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골프클럽 최초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해 화제를 모은 휘닉스파크 골프클럽은 파72, 총연장 6336m(6932야드)에 7개의 호수와 도전적인 코스 세팅으로 7회 연속 대한민국 베스트 10대 코스에 선정된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클럽이다.

휘닉스파크 관계자는 "개장 초기인 3월에는 콘도나 숙박시설이 어느 때보다 여유 있어 골프를 즐기기에는 최고의 시기"라고 귀띔했다.

◆무기명 주중회원권 선보여

휘닉스파크 골프클럽은 신개념 골프회원권인 실속형 '무기명 주중회원권'을 출시했다.

정회원+가족회원으로 가입 조건을 한정했던 기존 골프회원권과는 달리 비싸게 가족도 자유롭게 라운딩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콘도를 회원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피블리 골프장 주중 50%·주말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워터파크·리프트 등 휘닉스파크 전 부대시설을 회원 할인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휴 골프장인 경기도 블루헤런G.C와 경주 블루원 보문CC에서도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프회원권 넘버식 가입비는 A·B 타입 모두 3500만 원이다.

한편 휘닉스파크는 기후 상황에 따라 이달 미지막 주말까지 스키장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낮에는 골프를 치고, 밤에는 야간 스키를 타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다.

문의: 1577-0755 /권보람기자

이천으로 '꽃마중' 가볼까

다음달 산수유꽃축제 개최

제14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4월 12~14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송말·경사리 등 원적산 가슭 산수유 마을에서 열린다.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산수유 꽃을 테마로 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변덕스런 날씨 탓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1주일가량 늦춰 열리게 됐다.

축제가 열리는 원적산 기슭 백사면 5개마을 16만5000㎡는 어린 묘목에서 500년 가까이 된 산수유나무 1만8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룬 수도권 최대 산수유나무 집단 군락지로 꽃이 피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지난해 낙수제와 영원사를 돌아오는 5.3㎞ 구간의 산수유 둘레길이 조성돼 호젓하게 산책을 하며 산수유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축제기간에는 두부 만들기, 산수유 비누 만들기, 투호, 그네 널뛰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되고 벌리댄스, 태권무, 사물놀이 등 풍성한 공연이 열린다.

또 산수유마을 농가에서 재배한 산수유 열매를 구입하고 산수유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승무원이 추천하는 '방콕 올레'

제주항공, 리플렛 제작 배포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만든 '방콕올레'와 '홍콩 체크리스트'를 리플렛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각종 여행 정보와 코스, 쇼핑 정보 등을 담았다.

'방콕올레'는 제주항공 승무원 4명이 방콕에서 인기 있는 4개 지역을 직접 발굴해 ▲쇼핑과 미식 올레-씨암(Siam) ▲젊은 그대를 위한 낮춘 올레-통로(Thong Lo Rd) ▲쉬어가는 올레-수쿰빗(Sukhumvit) ▲아름다운 야경 올레-실롬(Silom) 등의 지도와 함께 각각 추천시간대, 추천코스, 힘께하면 좋은 일정 등 도보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 승무원이 추천하는 '홍콩 체크리스트'에는 홍콩여행에서 놓치면 안될 여행지와 홍콩관광 노하우, 교통, 먹거리 등을 65가지 리스트로 작성해 놓았다.

이 책자는 제주항공 기내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지상낙원' 하와이 호텔 반값 할인

익스피디아, 31일까지 행사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이달 말까지 지상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하와이 호텔을 최대 55%까지 할인한다.

오아후 섬·하와이 섬(빅 아일랜드)·호놀룰루 다운타운 및 와이키키 해변·카우아이 섬·몰로카이 섬·마우이 섬·라나이 섬의 주요 호텔 상품을 최대 55% 할인된 특가로 선보인다.

에스턴와이키키비치호텔(3.5성급)·와이키키 게이트웨이 호텔(3성급)·캐슨 와이키키 쇼어(3성급)을 예약하면 하와이의 주도이자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는 오아후 섬의 관광단지와 유명한 에메랄드빛 해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다. 특가 상품의 이용 기간은 숙박일 기준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문의: www.expedia.co.kr

스테이크 한입 파스타 한입

스탠포드호텔 레스토랑 2만원대 콤보 메뉴 3종

스탠포드호텔 레스토랑 '카페 스탠포드'가 봄을 맞아 이색 퓨전 메뉴 '스테이크 & 파스타 스페셜'을 3종을 선보인다.

2만원대로 안심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부드러운 꽃등심에 아삭아삭 씹히는 숙주를 더한 꽃등심스테이크와 숙주볶음, 부드러운 새우크림소스스파게티와 안심스테이크,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린 아리비아타스파게티와 안심스테이크 등이다. 모든 음식은 식지 않도록 철판 위에 제공된다. 가격은 2만3100~2만5300원. /박지원기자

슈즈편집숍 레스모아 돌풍

매출 급증에 지점 3곳 추가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가 연이어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국내 슈즈 편집숍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레스모아는 이달 부천 소풍점, 아산 센타포드점, 구로 하이힐점 등 총 3곳의 매장을 새롭게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레스모아는 지난해 매출이 13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상승하는 등 불황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레스모아 측은 이 같은 성장의 이유로 차별화된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꼽았다. 특히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진행한 럭키박 이벤트와 같이 계절적 이슈나 문화 행사를 연계한 마케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기자

이대병원 어깨질환센터 건강강좌

26일 참석자 운동기구 증정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가 26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어깨관절의 날(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건강 강좌는 신상진(사진) 어깨질환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 어깨질환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 강좌에서는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초음파 무료 검진을 실시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어깨관절 질환 가이드북과 어깨운동 책자 및 동영상 CD, 어깨운동 기구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02-2650-5143~4)로 문의하면 된다.

바바라 日매장 2곳 오픈

국내 슈즈 브랜드 바바라가 최근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의 니고야·이와타야점에 연이어 단독 매장을 열며 본격적인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주목할 것은 이번 단독 매장 오픈이 자발적 진출이 아닌 일본 백화점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본 현지 한 관계자는 "많은 일본 여성들이 바바라 특유의 사랑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도까이 골프세트 판매

뉴라이프21이 일본 기업 도까이시가 제조한 남성 골프 풀세트 '아큐디스(Accudis)'와 여성 풀세트 '링크스(Links)'를 독점 판매한다.

총 11종으로 구성된 풀세트은 일본 장인의 섬세함이 살아있는 디테일 실력을 기울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170만원짜리 풀세트를 직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남녀 각각 100세트 한정으로 89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문의: www.NL21.co.kr 1644-3606

"마일드세븐 찾지마세요"

이름 '메비우스'로 변경→"맛·가격 그대로"

일본계 수입 담배 '마일드세븐'의 브랜드명이 36년 만에 '메비우스(MEVIUS)'로 바뀐다. 담배 맛과 가격(2700원)은 기존 마일드세븐과 같게 유지된다.

JTI코리아는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메비우스'란 새로운 이름과 새 디자인을 통해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세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977년 첫선을 보인 마일드세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숯 필터 담배 브랜드로, 우리나라에는 198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JTI코리아 박병기 대표는 "특유의 부드러운 맛으로 우리나라와 타이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주로 팔렸지만 최근 유럽 등에서 수요가 늘어 브랜드 교체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순차적으로 교체되기 시작하면 빠르면 2~3주, 늦어도 2~3달 후에는 전국 판매처에서 마일드세븐 대신 메비우스가 팔리게 된다. 다음은 박병기 대표와의 일문일답.

-브랜드 교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잦은 우리나라의 실정 때문인지

▶아니다. 이미 본사 차원에서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국가별로 차례대로 브랜드명이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브랜드명을 교체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경고 문구를 바꿔야 하는 시기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바뀌면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마일드세븐 고객들은 특유의 담배 맛 때문에 제품을 찾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인데

▶단번에 4500원으로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비싼 담뱃값 때문에 안전이 확인 안 된 밀수 담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나이 잊은 우아한 포스

배우 김희애가 명품 브랜드 이세이미야케(Issey Miyake)의 뮤즈로 돌아왔다. 김희애는 에스프릿 플리츠 롱 드레스 등 새 컷들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세이미야케의 의상을 다양하게 소화하며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이세이미야케는 동양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긴 예술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다.

망치로 박살… 스트레스 '아웃'

CU, 부셔먹는 과자 출시

편의점 CU가 망치로 부셔먹는 디저트 슈니발렌에서 착안한 과자 슈니볼을 20일 단독 출시했다.

지름 10cm 눈덩이 모양의 슈니볼은 독신한 빵처럼 생겼지만 딱딱한 것이 특징이다. 망치로 깨서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특유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어 1석 2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CU 스낵식품팀 이유진 MD는 "슈니볼은 추억으로 부숴먹는 신개념 과자로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맛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스위트 혈케익 2종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다양한 디저트 상품으로 직장인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슈니볼은 딸기·헤이즐넛초코·화이트초코 3가지 맛으로 출시됐으며 개당 2500원에 판매 중이다. /김보람기자

화이트초코 헤이즐넛초코 딸기

"비타민, 이제 편의점에서 구입하세요"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 확대

CJ제일제당이 건강기능식품 판로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온라인·홈쇼핑 위주의 판매를 탈피해 대형마트와 드러그 스토어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신규 유통채널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번에 신제품 '뉴트리베이스 멀티비타민 미네랄'과 '뉴트리베이스 오메가3 케어'를 대형마트에 가장 먼저 선보였다. 기존 주력 판매처인 온라인과 홈쇼핑보다 대형마트에 먼저 새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80% 증가했고 취급 종목 수도 20여 종에서 30여 종으로 늘었다.

편의점에도 새롭게 진출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말 GS25와 함께 맛다운과 마시는 비타민인 '워터빈' 등 7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최정 이틀 연속 홈런포!

SK 새로운 '4번 타자' 등직·· 롯데 강민호 솔로포 등 16안타 폭발

SK 4번 타자 최정(사진)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날리며 무게감을 과시했다.

최정은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4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서 홈런 1개를 포함해 2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쏘아올린 최정은 4회 선두 타자로 나서 시원한 결승 솔로포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한동민은 9회 투런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다.

SK 선발 채병용은 5이닝 4피안타 5볼넷 1실점, 넥센 선발 강윤구는 5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2실점으로 무난한 피칭을 펼쳤다.

롯데는 사직구장에서 LG를 상대로 강민호의 투런 홈런 등 장단 16안타를 몰아 9-2로 승리해 시범경기 4연패에서 벗어났다. 첫 등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롯데 선발 유먼은 4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2실점으로 시범경기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김성배·이명우·진명호·강영식·정대현이 릴레이 등판해 무실점으로 경기를 미무리 지었다.

두산은 김현수의 홈런포를 앞세워 한화를 10-4로 완파했다. 김현수는 3회 한화 선발 김혁민에게 중월 투런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선발 김선우는 5이닝 5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신생팀 NC는 마산구장에서 KIA를 4-2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5회 초 신종길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0-2로 뒤지던 NC는 5회 말 반격에서 동점에 성공한 뒤 7회와 8회 1점씩 추가하며 경기를 뒤집는 뒷심을 보였다.

올해 NC의 마운드를 이끌어갈 에릭 한크는 5이닝 3피안타 2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14일 두산전에 이어 합격점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 프로야구 시범경기 전적(20일)

팀	1-3	4-6	7-9	계
LG	100	100	000	2
롯데	300	022	20X	9

▲승 유먼 ▲패 우규민

팀	1-3	4-6	7-9	계
KIA	000	020	000	2
NC	000	020	11X	4

▲승 고창성 ▲세 김진성 ▲패 박지훈

팀	1-3	4-6	7-9	계
두산	024	001	201	10
한화	000	000	130	4

▲승 김선우 ▲패 김혁민

팀	1-3	4-6	7-9	계
SK	001	102	012	7
넥센	001	000	000	1

▲승 채병용 ▲패 강윤구

'피겨여왕'의 여유 피겨여왕 김연아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입국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살짝 곁눈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귀환에 인천공항 마비

김연아 "소치에선 '레미제라블' 뛰어 넘어야"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인천공항을 마비시켰다.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자 입국장에는 몰아온 '피겨 여왕'을 보려는 1000여 명의 팬들과 취재진들로 북적거렸다. 1층 입국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팬들은 2층 난간 주변에 모여 김연아를 기다렸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자 난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공항 직원들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분주히 뛰어다녀야 했고, 공항 직원은 "올림픽 때보다 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연아는 입국 기자회견에서 "2014 소치 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어린 후배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링크장 등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어 새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음 시즌이 올림픽 기간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에 신경써야 될 것 같다"며 "이번 프리스케이팅의 '레미제라블'이 워낙 좋은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 걱정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민준기자 mkim@

도미니카 WBC 전승 우승 대기록

푸에르토리코 3-0 제압··· 카노 대회 최다 15안타 MVP

도미니카공화국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사상 첫 전승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코와의 2013 WBC 결승에서 1회 터진 에드윈 엔카르나시온(토론토)의 2타점 2루타와 상대 타선을 3안타로 틀어막은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특히 대회 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8경기를 모두 이겨 사상 첫 전승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고, 우승상금 1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40만 달러(약 38억원)의 부수입을 챙겼다.

로빈슨 카노(뉴욕 양키스)는 이번 대회에서 홈런 두 방을 포함해 타율 0.469(32타수 15안타)의 맹타를 휘둘러 최우수선수(MVP) 영광을 안았다.

/김민준기자

2013 WBC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힌 로빈슨 카노(왼쪽)가 동료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1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에서 발췌했습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at do you want, John?
B Oh, I don't know. 넌 뭘 먹을 건데, 밥?
A 난 커피 한 잔하고 케이크 한 조각 먹을래.
B Hmm, the cake looks so yummy. I think I'll have one, too.

정답 What do you want, 밥? / I want a cup of coffee and a piece of cake.

생생영어팁

▶ I think I will... ~인 것 같아요.

우리말 습관 중에 '~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바로 I think..., I guess..., I suppose...로 시작하는 말이 '~인 것 같아요'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등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냥 I will have a burger.(전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라고 하기보다 I think I'll have a burger.(전 햄버거를 먹을까 하는데요.) 정도로 말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he sales invoice contains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_______ by the buyer and seller.
(A) agreeing upon (B) agreement
(C) agree (D) agreed to

02 Director Kawamura's _______ is that those with expertise in the fiel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l hiring decision.
(A) position (B) function
(C) classification (D) location

01. 매출 송장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의해 합의된 모든 조건들이 들어 있다.
해설 문장의 본동사는 contains가 있기 때문에 동사인 (C)는 오답이다.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뒤에 '관계대명사 + be 동사'가 생략된 축약 구조(all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agreed to by ~)이므로 (D) agreed to를 써야 한다.
어휘 sales invoice 매출 송장 contain ~이 들어 있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등의) 조건 agree to ~에 대해 합의하다
정답 (D) agreed to

02 카와무라 이사의 견해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 채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문맥상 '이사의 입장, 견해'가 적절하므로 (A) position을 써야 한다. '견지, 입장'을 나타내는 stance로 쓸 수 있다.
어휘 expertise 명 전문성, 전문 지식 be responsible for ~을 책임지다 function 명 기능, 용도 classification 명 분류 location 명 위치
정답 (A) position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2. Describe a picture

대상 묘사하기

■ 사진의 구도 표현하기
좀더 체계적인 사진 묘사를 위해서는 묘사하는 대상의 위치를 말해주어야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를 나타낼 수 있다. 구도가 그려지는 사진 묘사는 각 묘사 내용들 간의 공간적인 관련성을 더해주어 보다 체계적인 답변이 된다.

[앞뒤 및 좌우 표현하기]

①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wo men are sitting at the table.
② There are four people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 오른쪽에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③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④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table.
⑤ A clock is hanging on the wall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사진 뒤쪽에 시계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